

종교교육학연구 제42권. pp.143-161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7. 30.

북한이주민 종교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민족지적 고찰*

정 진 현

막스플랑크 종교와 민족다양성 연구원

〈요 약〉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의 수가 2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이주민 남한 사회 정착과정에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국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민족지이다.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을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 접촉 지점(contact zone)으로 보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벌어지는 남한 교역자와 북한이주민 교육생간의 문화화 과정의 주요 단면들을 서술한다. 북한 사회 및 북한이주민의 특수한 삶의 내력 이해를 전제로 한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에서는 실제로 문화상대주의적 접근이 미약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남북한 주체간의 문화이질성 경험은 분단 체제하에서 남북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양성한 민족동질성 신화 및 북한에 대한 남한 중심의 문화우열 의식을 반영한다. 이분법적 냉전 구도하에서는 북한이주민의 과거와 문화 정체성은 부정적 타자로 폄하되며, 따라서 주체사상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목적론적으로 유도된다.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강조되는 남한 자본주의 체제 적응에 적합한 경쟁적 가치관 습득과, 민족복음화의 잠재적 사역자로 거듭나는 기독교로의 개종은 남한 사람들의 민족적-종교적 열망이 투영된 이상적 북한이주민상이다. 북한이주민들에게 이러한 기대는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 권능을 체험하는 중층적 성격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 사역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북한이주민들만이 변화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남북한 문화 이해와 소통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핵심 주제어: 북한이주민 사역, 문화 접촉지점, 문화화와 종교 개종, 이상적 북한이주민상, 문화상대주의

* 이 논문에서 “북한이주민”이라 함은,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남한으로 귀순, 탈출한 북한 출신 한국인을 칭하되,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중국, 몽골 등 제 3국을 거치거나 혹은 직접 남한으로 온 북한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한다. 명칭 변경과 의미에 대한 논의는, 정병호, 『탈북 이주민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권 1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4), 33-62쪽;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서울: 집문당, 2009) 참조.

I. 들어가는 말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의 수가 2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다.¹⁾ 반면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재입북하는 이주민도 생기고 있으며,²⁾ 캐나다, 미국, 영국이나 독일 등으로 재이주해 간 사례도 적지 않다.³⁾ 북한이주민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 중후반부터 정부와 사회단체 차원에서 북한이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연구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 및 대중 매체의 발표들은 북한이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대부분 내놓는다. 북한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온 이우영은 “작은 차이와 오해 그리고 편견이 사회적응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⁴⁾ 같은 피부와 언어를 공유한 한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를 경험한 탓에 “작고” 미묘한 차이가 차별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거대 담론이나 제도의 평가로 시작하는 하향식 접근이 아닌, 일상의 작은 갈등에 대한 미세한 참여관찰을 통해 북한이주민 사회적응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이주민 남한사회 정착과정에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가장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한국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민족지로서, 남북한 문화주체들의 소통과 교감, 어긋남의 현장을 성찰적으로 묘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최근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북한이주민 중 남한입국 초기에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게는 85% 정도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는 곧 그들의 이주 과정에 기독교 선교사의 인도와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지난 2013년 5월 남한 또는 미국행을 위해 라오스 국경을 넘다 체포되어 다시 북으로 인계된 아홉 명의 북한 청소년 사건에서 보여지듯, 초국적 북한인권연합 단체들의 지원과 남한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개입은 북한이주민의 탈북 루트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남한사회 초기 정착과정에서도 기독교회의 영향력은 물질적, 사회문화적 지원 시스템 차원에서 국가 기관 다음으로 지대하다. 전우택(외)의 20대 이상 동일 집단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65% 정도가 종교 생활을 하며, 그 중 개신교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⁵⁾

1) 북한이주민 수는 2013년 3월 현재 약 25,000명이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 통일부 자료실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참조.

2) <탈북자 2백여 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시사저널》1085호, 2010년 08월 04일, <탈북 여성 3명도 5월 재입북...北의 포섭공작에 넘어간듯>, 《동아일보》, 2012년 7월 24일, <재입북 탈북자 3명 북한서 좌담회...南 비방>, 《데일리 NK》, 2013년 5월 18일.

3) <제3국행 탈북자 최소 2600명 추산. 불법체류·영주권자 통계 안잡혀>, 《한겨레 뉴스》, 2011년 8월 14일.

4) 이우영,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02 (서울:통일연구원, 2003), 59쪽.

5) 전우택 외, 『성인: 3년이 만들어 낸 무녀들』 정병호, 전우택 편 『웰컴투코리아: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4부 제20, 28, 29장.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조사를 한 윤인진의 연구에서는 73%이상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개신교가 72%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⁶⁾ 이러한 통계와 더불어, 설문 및 면접을 토대로 나온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종교가 북한이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심리적 안정,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미래상, 새로운 인적관계 형성 등의 다중적 혜택을 종교 생활을 통해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⁷⁾

이 글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기능적 성격에 대한 평가를 통계적으로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라는 신앙 공간을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 접촉 지점(contact zone)⁸⁾으로 보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벌어지는 남한 교역자와 북한이주민 교육생간의 문화화 과정의 주요 단면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 접촉 지점으로서의 교회라는 공간은, 집단간 서열화가 나타나지만, 일방향적 획일화가 아니다. 대신, 남-북한 사람들 사이, 그리고 그들의 문화 사이의 수평적 상호소통을 통한 문화 전이(cultural transmission), 나아가 의례를 통한 사람과 성령/신과의 수직적 소통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현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층적 소통 관계를 내포한 선교와 교육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을 참여관찰과 공식,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그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선별 활용된 자료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서울 한 대형교회 북한이주민 교육프로그램인 자유학교(가칭)에서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내용들과,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자유학교 출신 사역자 및 북한이주민과의 후속(follow-up) 면담, 이메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들 중 본고의 주제와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였다. 음성 녹음이나 직접적인 기록을 기피하는 북한이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과 사적인 만남 등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 몸짓과 표정, 핵심 정보제공자와의 심층 면담 등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empirical study)에 앞서, 기독교적 입장이 담긴 기존 연구 및 주요 관점들을 먼저 검토하도록 한다.

6) 윤인진 (2009), 238-9쪽

7)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공저, 『북한이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9), 93-216쪽; 전우택, 윤덕룡, 엄진섭 공저, 『남한 내 탈북자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3권 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4), 93-104쪽; 유시은, 전우택, 조영아, 홍창형, 엄진섭,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 추적 연구-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9권 1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05), 83-84쪽;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8) Mary Lousi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p. 8.

II.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 연구의 이론적 전제

북한이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 오랜 동안 사역해온 크리스찬 학자 조용관과 전우택 모두 북한이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꼽았다.⁹⁾ 그리고 이는 향후 통일 과정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을 예견했다. 여기서 문화적 이질감이란, 남, 북한 사람 모두 서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재, 기술의 부족, 그로 인한 편견과 두려움, 자문화 중심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고 잘못 대응하는 등의 실제 사례 등이 포함된다.¹⁰⁾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합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를 가장 실질적이며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유용성과 그 안에서의 개선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주민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북한 사회 및 북한이주민 삶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곤 한다. 온누리 교회가 지원하여 2005년 설립한 탈북자종합회관을 운영하며 매달 한 차례씩 4박 5일간 북한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새 생활 체험학교’를 진행한 주선애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북한이주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북한이주민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 이주민과 다른 방식으로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북한이주민 사역의 의미는 더 큰 지향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이주민들이 향후 민족복음화 실현의 반석인 잠재적 선교사들로 선택되었다는 예정설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과 주장은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의 의미와 활동은 사역의 대상자인 북한이주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들의 반응과 해석은 북한이주민 사역에 어떠한 성찰을 유도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을 현장 중심의 묘사와 서사를 통해 살펴보는 게 목적인데, 그에 앞서 선행 연구와 사역 현장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성찰적 과제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남북한 문화 이질성(heterogeneity)의 이해와 경험과 관련된다. 북한이주민 사역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종교계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 동안 주체사상, 혹은 김일성주의의 원리 및 구현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¹³⁾ 반면

9) 조용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통일교육의 과제」, 『국민윤리연구』 제57호(국민윤리교육연구회, 2004), 217-240쪽; 전우택,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 을 위하여」, 『신앙과 학문』 제5권 4호(기독교학문연구소, 2000), 63-87쪽.

10) Andrei Lankov, *Bitter Taste of Paradis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ast Asia Studies, 2006, p. 105-137.

11) 주선애, 「교회의 탈북자 사역 개발」, 『교회교육』 제369호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원, 2008), 27쪽.

12) 주선애, 앞의 글, 26쪽.

에 사역 현장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적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북한이나 북한이주민들의 특수성들을 문화간 이해와 대화를 목적에 두지 않고, 남한 중심으로 적응(assimilation)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경험하는 문화 이질성이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는 서로가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혈연중심의 민족 동질성 신화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모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분단에 의한 서로 다른 체제 경험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행동방식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토양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저해한다. 비판적 지식인들에 의해 지적이 되었듯 남북한 모두에서 민족 동질성 신화는 근대 식민지 저항역사의 산물이면서, 또한 남북한 분단 체제 정권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변형된 냉전 이데올로기의 한 유형임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¹⁴⁾

따라서 북한이주민 사역 또는 지원 현장에 있는 남한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북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화적 이해까지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주민들도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차이까지 감지할 수준은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문화 이질성의 경험은, 분단체제하에서 생성된 민족동질성에 대한 환상이 현실과 만나 부서지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¹⁵⁾

이에 덧붙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즉, 남북한 문화 이질감 경험은 북한이주민의 입장에서는 문화 차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문화적 특성은 이해되고 인정될 다문화(multiculture)의 하나가 아니라, 부정되고 폄화되는 타문화에 불과하다.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개종(conversion)과 관련해서는, 북한이라는 문화적 공간은 과거의 악습으로 과감히 떨쳐야 할 부정적 타자로 인식된다. 북한이주민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모국인 북한은 물론, 그들의 현

13) 이 분야에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물과 저서들이 많으나, 이 논문에 유의미한 저작물을 참고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수원, “북한 주체사상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 - 기독교 종교 활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1호(平和問題研究所, 2011), 30-62쪽; 박영환, 『통일과정에서 북한선교의 기능적 역할로 본 북한교회 재건』,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 제15권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2007), 1-22쪽; 박영환, 『주체사상과 북한선교』, 『神學과 宣敎(Telology and mission)』 제31호 (서울신학대학교, 2005), 47-83쪽; 김영옥, 『남북한 문화 비교연구와 북한 선교: 남북한의 문화비교와 북한주민의 세계관과 선교』, 『기독교언어문화논집』 제8호(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2004), 273-294쪽; 김병로, 『북한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정책』 (통일연구원, 2002).

14) Hagen Koo(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238, Roy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Shin, Gi-Wook,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서울: 소나무, 1999) 참조.

15) 분단체제(division system)이라는 개념은 Immanuel Wallerstein의 World-system(세계체제) 이론을 한국에 적용한 백낙청의 정의에 따른다.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202쪽 참조.

재적 자아를 구성한 북한 문화에 대해 부정하고 부인해야 하는 사회정치적 요구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주민 문제가 인권(human rights) 문제 등과 연결되어 쉽게 정치화되는 현상, 그리고 몇몇 북한이주민들이 반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상황들은 남북한 관계는 물론 북한과 타국가와의 관계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적용될 수 없는 냉전 체제에 의해 아직도 좌우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냉전 체제의 영향이 북한이주민 사역에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선민(the chosen)의식과 같은 과거 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미래적 자아 구성에 유용한 언어를 기독교가 제공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적 언어의 습득과 그로 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재구성은 북한이주민들에게는 단순하기보다는 중층적인 의미나 때론 부담으로 작동한다. 우선 위에서 제기한 냉전의식의 종교-이데올로기적 해석들-“악”한 북쪽과 “선”한 남쪽-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거듭남(born again)에 필요한 과거와의 결별, 혹은 버짓 마이어(Birgit Meyer)의 표현대로 과격한 파열(radical rupture)을 하기에는 현실적 삶의 무게나 성취해야 할 이상적 자아가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¹⁶⁾

다시 말해, 북한이주민 사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즉, 남북한 문화 이질성과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적응, 그리고 기독교적 개종을 통한 남한 사회로의 문화화(culturization)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분단 상황에서 종교를 통한 문화적 소통의 중층적 의미들을 재고찰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남북한 주체들 간의 소통의 전제가 되는 “문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서론에서 짧게 서술했듯, 이 글에서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전이(transmission), 적응(adaptation), 변용(appropriation), 협상(negotiation)의 내용이 되는 문화는,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가 제안한, 과거로부터 축적된 전통적 사고 및 생활양식과 미래지향적 열망들 간의 대화(dialogue)로 정의하고자 한다.¹⁷⁾ 여기서 열망(aspiration)이라 함은, 추상적 기대나 꿈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북한이주민 사역은 한국 교회와 현장 활동가들이 의미 부여했듯, 민족복음화라는 한국 기독교의 종교적-민족적 열망이 투영된 현장이다. 또한 북한이주민들에게는 남한 사회적응의 목적과 의미를 미래지향적 과업의 한 과정으로 여기도록 하는 과도기적 의례(initiation ritual)이기도 하다. 북한선교의 실험장이라 불리는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은 그래서 성공의 척도도 객관화시키기 어려우며, 사소한 오해와 갈등은 물론, 서로간의 고집과 편견, 그리고 비언어적 교감과 화해 등이 공존하는 역동적 문화 공간이다.

16) Birgit Meyer, *Translating the Devil: religion and modernity among the Ewe in Ghana* (NJ: Africa World Press, 1999).

17) Arjun Appadurai, “The Capacity to Aspire: Culture and the Terms of Recognition,” in Rao, Vijayendra and Michael Walton(ed), *Culture and Public Action*(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Ⅲ. 북한이주민 사역 프로그램 현장 민족지

이 장에서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이주민 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 사회의 어떤 측면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주민들에게 소개되며, 북한이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시도한다. 그 성격과 의미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이름을 임의로 자유학교라고 명명한다.¹⁸⁾ 자유학교는 종교적 회심(conversion)과 남한사회의 현실적 적응 능력 배양이라는, 선교와 교육 두 분야의 목적과 방법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현장이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전통적 지식이나 습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한 사역자들의 통일한국과 북한선교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projections)들까지 전이(cultural transmission)된다.¹⁹⁾ 그런 자유학교에서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영되는 남한 교회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자아상은, 미래의 통일된 국토에서 북쪽 사람들을 위해 자유시장경제와 기독교 신앙을 전도하며 동시에 상처를 치유해 주는, 민족과 교회 부흥의 선구자/선교사이다. 자유학교 프로그램은 그런 미래의 사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자 프로젝트이다.

자유학교에 참여하는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은 매년 오십 여명으로 여성이 거의 80%, 남성이 20%를 차지하며,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로 한국 정착 일 년여 정도 지난 성인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일반상식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 강의가 이루어지며, 주중에는 구역별 모임이 진행되고, 남한사역자의 가정 심방이 진행된다.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은 매월 이틀 이상 결석이 없는 한 장학금 명목으로 약 20여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교회에서 북한이주민 성도들에게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자립심을 낮추고 의존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었으며,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주민을 유치하고자 경쟁적으로 상승시킨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생활비 보조를 자제하는 추세였다. 자유학교 관계자들에 의하면 자유학교 출석 북한이주민에 대한 장학금 20여만 원은 의존성을 증가시키기에는 부족하고, 동기 유발에는 효과적인 액수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초기 정착 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이주민 대상이라, 대부분의 교육생은 주중에 미용이나 전산 등의 직업훈련을 받고, 주말에 자유학교에 출석한다. 이 장에서는 자유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개나 평가가 아닌, 서론에 제시한 남북한 주체간, 그리고 개종과 관련된

18) 본 논문에 등장하는 단체 및 개인은 모두 가명이다.

19) 미국 교육인류학의 창시자인 George Spindler는 세대 간 문화 전이(cultural transmission)를 교육의 주요한 과정이자 내용으로 보았다 (George D. Spindler, *The Collusion of Illusions and How to Get People to Tell You What They Don't Know*," in Zou, Yahli & Henry, Enrique (Eds). *Ethnography and Schools: Qualita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Educ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13-25.) 이런 관점은 선교를 문화 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신적 존재와의 소통에서의 작고 미세한 오해나 편견, 그리고 교감의 가능성과 내용들에 집중한다.

1. 섬김과 사명: 남한 사역자, 북한이주민, 그리고 절대자와의 소통 위계

“우리 주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자유학교 당시 책임 사역자인 김교장은 주님의 뜻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다고 한다.²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이주민 교육생 개개인을 통일 한반도를 개척할 미래의 동료 사역자로 섬기고자 했다. 자유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장로 한분은 현지조사 첫날 소박한 표현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했다; “우리가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누가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그게 약간 비뚤어졌으면, 다가가서 그냥 살짝 바르게 해주는 것. 그거라 보시면 되요.” 실제로 그는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이면 교육생들이 앉은 책상 사이를 다니며 남자 교육생들의 넥타이를 만져주거나, 어깨에 떨어진 비듬을 털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살짝” 도와주는 구체적 행위는 “섬김”의 구현이자 “주님 음성”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실천으로써, 남한 사역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그들 스스로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소명”은 막스 베버가 복유럽 자본주의 번성과 긴밀한 관계로 분석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내용 중 핵심에 해당하는 덕목이다.²¹⁾ 남한 사역자들은 북한이주민을 위한 섬김을 신성한 현재적 사명으로 여긴다. 베버의 따르면, 소명은 직업에 충실하며 경제적 이득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정신이다. 자유학교 종교 사역자들이 실천하는 소명은 “섬김”의 행위로 구체화된다. 고용 직원들은 적은 월급을 감수하며, 휴일도 없이 평균 근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헌신한다. 봉사차원에서 사역하는 장로와 집사들은 자신들의 사적 네트워크와 자비를 들여서라도 그 “섬김”의 소명에 헌신한다. 다른 교회 신자이면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박집사의 경우, 미국 방문 중 그곳 한인교회의 대학생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 감명 받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주님의 음성”에 회개하고 북한이주민 사역에 나섰다고 한다.

미래의 동역자로서 섬김을 받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이 남한 사역자나 각 프로그램별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맡은 남한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관계마저 수평적

20) 기도를 통하거나 혹은 우연한 계기로 듣게 되는(혹은 그런 것으로 믿는) 주의 음성은 주와의 인격적 만남을 확신하고 보다 깊은 신앙심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심리인류학적 연구로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신자들의 사례를 민족지적으로 기술한 T. M. Luhrmann, *When God Talks Back: Understanding the American Evangelical Relationship with God* (New York: Vintage Books, 2012) 참고할 것.

21)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출신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활동에 전문가이자 인류학자인 정병호가 일찍이 지적했듯, 북한이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을 북한에서의 노동당 당원 가입처럼 사회정치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²²⁾ 북한에 당서열이 있듯, 남한 교회의 위계질서에도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등의 지위, 자유학교의 경우 교장, 실장, 과장, 간사 등, 그리고 강사로 나서는 남한 전문가들에게는 교수나 사장 등의 직함과, 형제와 자매 등으로 불리는 자신들의 평신도 지위를 서열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에 기초한 비유적 존재에서도 남한 기독교인들에 비해, 자신들은 “돌아온 탕자”로 여겨짐을 알고 있다. 그들의 과거는 오염되고 용서받아야 할 부정의 대상이기에, 정체성 우열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북한이주민들이 체득한 북한에서의 문화적 습관들은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빨리 버려야 할 것들로 분류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재문화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역동성을 제공하는 것 역시 성경적 메타포들이다. 출애굽과 유사한 탈북을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한에 온 북한이주민들은 신의 섭리에 의해 “선택된” 개인들이며, 온갖 역경을 극복한 미래의 “요셉”으로 남한은 물론 남북한 통일과 복음화 과정에 선구자가 될 존재로 권한 부여(empowerment) 받는다. 따라서 절대자 신을 정점으로 하여 아직은 남한 사역자들이 우위에서 자신들을 매개하지만, 그런 우열관계는 잠정적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권위적 태도를 보이는 남한 사역자들과 심지어 일반 사람들에게 마냥 순종하지 않는다. 심지어 남한 사역자들이 자기들 덕에 월급을 받고 있다는 식의 인식과 발언으로 그 권위를 해체하기도 한다.²³⁾ 북한에서 당에 복종하던 습관 탓에 남한에서도 자신들의 권위를 쉽게 인정할 거라던 남한 사역자들의 기대는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이럴 때마다 남한 사역자들은 북한이주민들의 “자존심”이 세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북한이주민들 안에서도 북한에서의 지위가 높았거나 남성일 경우 “자존심”이 더 세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서 자존심이란 북한 사회에서 강조하던 민족적 정통성(legitimacy)과도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주민들이 경험한 차별 상황에서의 상대적 자기 방어 기제로써의 자존심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조선족들의 도움과 착취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남한에 와서는 북한 출신임을 밝히는 순간 무시하기 시작하는 남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과거 북한에서 강조한 정통적 민족성을 자존심으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족 국가인 중국에 지배당하며 제 뿌리를 잃은 조선족에 비해, 또한

22) 정병호, 위의 글, 50쪽.

23) 김윤영(Kim Y. Y.)의 탈북청소년 사례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남북한 주체간 위계서열화 역전 인식이 발견되었다. Kim, Y. Y., *Making National Subjects: Education and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Immigrants in South Kore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2009).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종속당하여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남한의 “배부른 부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보다 민족적 순수함과 정통성을 지녔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들에게 미래적 권능을 부여한 성경의 메타포들은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남한식 권위가 작동할 여지를 줄인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이주민들이 남한 사람 및 문화 우위의 새로운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로의 적응에서 그들의 자존심은 “쓸데없는” 아집이나 무능함에 대한 방어기제로 폄하되며, 그 대신 예의바른 “섬김”의 미덕, 혹은 서비스 정신을 체화시켜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이렇듯 복합적이며 다차원적 관계 맺기(남-북한 주체간, 개인-신 사이)는 북한이주민들의 새로운 자아 선택의 자유와도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

2. 권능과 자유: 거둢남과 문화화의 부담

북한이주민의 남한 입국과 정착 과정에서 “자유”라는 용어만큼 정치화되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개념은 없을 것이다. 서양 중심의 근대화와 더불어 개인 권리 중심의 자유 개념이 보편화되었지만, 타랄 아사드(Talal Asad)가 유럽 중심의 역사적 특수성을 설파했듯,²⁴⁾ 한반도 근대사에서 자유는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지닌다. 남한에서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즉, 북한 체제와의 대립된 가치 차원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기득권을 차지한 반면,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와의 예측관계가 없는 자주 국가로서의 집단적 자유가 지배 개념으로 섰다. 북한이주민들은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선택의 자유에 익숙해질 것과, 종교적으로는 초월적 존재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거둢남 자유, 또한 여러 종교 중 하나의 종교를 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유 등의 다양한 자유와 맞닥뜨리게 된다.

자유학교의 북한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과 법률, 취업 시장에 필요한 예절, 창업 및 운영의 노하우, 그리고 정신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한다. 자유대학 관계자의 표현대로 각 분야 거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이자 강사들이 전하는 종합선물세트에 비유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남한 사회가 요구하는, 매너 좋고, 자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직장과 사회 질서에 순응하되,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그런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의 덕목과 실천 방법들이 자유학교 강단에서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시연(demonstration)된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적지 않은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에게는 종종 “좋은 애긴 것 같은데, 몬 [무슨] 소린지 잘 몬 [못] 알아들겠”거나 “자꾸 집중하[고]자는데 골이 아픈” 과업이기도 하다.²⁵⁾

24) Asad, Talal, *Formations of the secular: Christianity, Islam, modern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25) 남한 표준어 대신 북한식 표현과 발음을 그대로 인용. 북한이주민들이 쓰는 “골이 아프다”라는 표현은, 남한에서는 “골치가 아프다”로 흔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현장 활동가들(자유학교 스태프 포함)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남한 전문 강사들이 시연을 통해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에게 투사한 거대한 자아상에 대한 북한이주민들의 인식이다. 그것은 남한 사회가 “기대하는” 이상적 한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남한의 이상적 “북한이주민상(象)”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상술한 종교적 덕목까지 더할 경우, 미래의 남북한 통합과정에 복무할 이상적 “복음사역자상”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북한이주민들의 “꼴 아프다”는 반응은, 자신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기대치가 큰 부담이기 때문만은 반드시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품었던 남한 사회에 대한 기대와의 간극을 간파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자신들의 기대조차도 유지하거나 추구하지 못할 만한 현실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난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들”, 즉 흔히 남한 사회 적응의 걸림돌로 보이는 요인들은 북한 사회 경험을 통해 습관화된 문화 패턴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예를 들어보자. 지금 강단에 선 50대 여성 CEO(교육생들은 젊은 외모에 비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일단 감탄한다)는, 강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라,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여 그 비법들을 재미나게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30대 초반 온성 출신 미란자매는 스마트폰 화면만 물끄러미 들여다 보고 있다.²⁶⁾ 그 화면에는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의 사진이 띄어져 있다. 강단에서 보면, 미란 자매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종종 자유학교 스태프에게 주의를 받기도 하며, 때론 적응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약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미란 자매 사례에 대한 중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미란자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남한의 고등학교나 대학 강의실에서 흔히 목격되는 심심함 달래기식의 유희 활동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미란자매의 사연에 있다. 미란자매가 들여다보는 핸드폰 화면의 아이는 당시, 중국에 남겨져 있었다. 조선족 남성에게 매매결혼 “되어” 낳은 아이는 마치 불모처럼 아비에게 남겨져 있었기에, 미란자매는 남편을 제외하고 아이만 데려올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었다. 미란자매에게 있어, 남한 사회 적응이라는 현재적 과제와 더 큰 미래의 자아로 거둬담의 목표는, 어미와 자식간의 인륜 문제, 아이의 생존 문제, 조선족 남편과의 협상 방법, 브로커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 등 당장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꼴 아픈” 과제들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는 사명이었던 것이다.

의 경험이나, 이주민들 사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수치가 높음을 밝힌 발표들을 고려하면, 남한 사람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다른 차원의 고통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귀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렇듯 맥락과 상황에 따른 이해가 가능하다.

- 26) 자유학교에서는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을 남자의 경우 형제, 여자의 경우 자매라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호칭을 이름에 덧붙여 부른다. 반면, 이주민 교육생들이 남한 사역자들을 부를 때에는, 스태프의 경우 직함을 붙여, 학장님, 실장님, 간사님으로 부르고, 남한 봉사자들에게는 장로님, 집사님의 교회 직함을 붙여 부른다.

둘째, 따라서 북한이주민에게 “자유”는 남한으로의 공간적 이동과 함께 당연하게 부여되는 권리나 가치가 아니다. 즉, 그들에게 “자유”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연결된 현재이며, 공간적으로 북쪽이면서 동시에 남쪽이며, 제도적으로는 법적 시민권, 무료 건강보험과 최소 생계비 지원 시스템이자, 북쪽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부채감과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또는 조국이 나를 배신했다는 분노, 그래서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고민하는 역사적 부담감을 함축한다. 자유학교에 참여하는 북한이주민들에게는 이에 덧붙여 민족 복음을 위한 미래적 자아상을 내재화시키는 과정과 그 과제를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자유”이다. 그들에게 남한의 “자유를 찾아왔다”는 정치적 레토릭은,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리고 어떤 자유여야 하는지 학습하고 깨닫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다.

자유학교 남한 사역자들의 현재적 소명의식에 따른 “섬김”, 그리고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강의 내용들과 그 시연은, 현재 남한사회에 축적된 가치와 양식, 즉, 관습적 문화라기보다는, 이상적이며 당위적이라고 구상된 미래지향적 문화 유형과 인간상이다. 자유학교는 이러한 남한 사회의 종교적 민족적 “비전들(visions)”이 재현되는 무대이자 현장이다. 그렇다면,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은 이러한 비전들의 현장에 익명의 관객일 뿐인가, 아니면 통독후 동독출신인들이 경험한 이등시민같은 차별적 지위로 타자화되는가? 다음 세션에서는 “대화”로서의 문화라는 관점으로 북한이주민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의 열망(aspiration)을 들여다 보도록 한다.

3. 현실적 적응, 초월적 미래와의 협상

종교는 근대적 개념의 난민이 나오게 된 근원이기도 하지만, 난민촌 난민들이 익명으로 남지 않고, 새로운 역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매개이자 목적이 되기도 한다.²⁷⁾ 자유학교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복음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은, 위에서 언급했듯 종종 성경과 기독교사에 등장하는 예화와 위인들로 비유된다. “돌아온 탕자”로 아비(주님)품에 다시 안긴 형제와 자매들이며, 형제들에 의해 버려졌다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요셉”같은 인물이 될 것이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끈 길선주 목사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후예들로 그 업적을 부활시킬 “권능”을 주께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다.²⁸⁾

남한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북

27) Alexander Horstmann & Jung Jin-Heon (ed), *Building Noa's Ark: Refugee, Migrants and Religious Communities* (NY: Palgrave Macmillan, forthcoming).

28) 각각의 예화와 인물에 대해, 개역 한글 성경, 누가복음 15장, 개역 한글 성경, 창세기 41장, 이현웅,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의 삶과 설교』 『신학사상』제137권 (한국신학연구소, 2007), 289-325쪽, 이덕주, 『주기철 목사 연구』(서울: 학문과 사상사, 2003)를 순서대로 참고할 것.

넉 땅에 경제적 풍요와 복음의 열매가 자라도록 섬기다 후대까지 이름을 남기는 그런 성인이 될 것이라는 목적론적 확신. 이렇게 종교적이며 동시에 정치경제적인 열망은 자유학교 한쪽 벽면에 커다란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통일된 한반도 지도가 중앙에 그려져 있고, 그 지도는 날개 달린 하트 모양의 새들과 끈으로 연결되어 어디론가 향하는 중이다. 커다란 천 캔버스에 빨간색, 분홍색, 파랑색 천조각들을 일일이 손으로 꿰맨 퀼트 작품. 자유학교 관계자들이 학교의 비전, 북한이주민의 미래가 가장 잘 이미지화된 이 걸개 그림은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이 퀼트 수업때 만든 것이다.

하트 모양의 “사랑”은 그들 개개인에게 투영된 새로운 존재의 의미이다. 그 존재는 날개를 달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자유대한”에서는 적어도 그런 개인주의적 자유가 좀 더 보장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로운 사랑은 민족의 미래, 통일조국의 복음화에 “끈”을 매달고 있다. 국경의 엄중함과 법적 시민권의 중요성, 그리고 남한의 무한 경쟁 체제를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인생 여정에 대한 형상화이다. 과거와 미래의 존재론적 무게는 한반도 국토에 매어져 있다. 그리하여 분단선이 제거된 한반도는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들려져 있다. 자유학교를 통해 새로이 만들어가는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의 미래지향적 열망은 사실 민족 자체의 초국가성, 심지어 초지상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초월성은, 남한 문화에의 적응을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과 기독교로의 개종을 최상의 문화 적응으로 보는 남한 교회들에게 유의미한 화두를 던진다. 정부와 민간 차원이 협력적,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남한의 북한이주민 지원 시스템을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로 명명한 강진웅은 북한이주민들이 규율화된 시민(self-disciplinary citizen)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⁹⁾ 푸코의 이론에 얹어 아이와 옹이 제시한, 만들어진(made) 만들어가는(becoming) 과정으로서의 주체는, 그러나 더 이상 규율적인(disciplinary) 시민에 머물지 않는다. 소위 “스스로 규제하는(self regulatory)” 시민주체이어야 한다.³⁰⁾ 자기 계발과 자기 관리, 스스로의 능력을 항상 긍정하는 신자유주의 인간형, 그것이 바로 북한이주민에게 투영되는 남한 사회의 기대치인 것이다. 여기에 신적 존재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새로운 “언약”을 씨줄로 엮는 종교적 개종(conversion)까지 북한이주민들은 요구받는 것이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통제와 규율이 아닌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잉긍정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를 푸코의 규율사회와 성격이 다른 “피로사회”라고 칭한다. 자기 스스로를 착

29) 강진웅,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 (韓國社會學, 2011).

30) Ong, Aihwa,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 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Vol.37, No.5, 1996, p.737-762.

취하는 사회, 그러다 정신적 육체적 탈진을 경험하는 사회가 곧 피로사회이다.³¹⁾ 북한이 주민들은 이러한 피로사회적 성격을 보이는 남한 사회로의 적응 과정에서 개인적 성공이 곧 미래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의 척도(barometer)로 비견되는 “이상적 북한인”으로 거듭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세속적 재문화화와 병행되는 종교적 개종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기식민주의 학자들은 서구 권력의 팽창과 그 궤를 같이한 기독교의 전파를 식민지 공모자로 비판해 왔다. 그에 따라 비서구 사회 주민들의 기독교로의 개종은 “의식의 식민지화 (colonization of consciousness)”로 해석되기도 했다.³²⁾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그에 대한 논리 전개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예로, 나타니엘 로버트(Nathaniel Roberts)는 인도 빈민가에 날로 증가하는 개신교도들에 대한 민족지를 바탕으로, 의식의 영역을 물리적 영토처럼 식민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이론에 반론을 제기한다.³³⁾ 남북한 분단 맥락에서는 “세뇌되었다”식의 적극적인 표현이라든지, 기독교로의 회심이 곧 주체사상의 “세뇌”로부터 해방되는 지적, 영적 전환이자, 악의 과거를 떨치고 선의 현재와 미래적 구원까지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이고 목적론적 인식과 태도가 지배적이다. “세뇌”라는 표현에는 북한이 주민들이 과거 북한 체제하에서 순진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우상화의 “피해자”로 그려짐과 동시에, 기독교로의 개종이 더딜 경우, 그 세뇌의 잔재가 내면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도록 한다.

그러나 북한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사회의 문화적 코드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남한식 기독교 의례와 언어를 서서히 습득해 가되, 개인의 기복적 신앙만이 아닌 민족적 구원과 번영까지 추구하려는 초월적 열망이 개종의 궁극적 지향이자 여정이다. 자유학교 북한이주민 교육생들의 퀴트 작품, 날개달린 하트와 그 아래 매달려 떠오른 한 반도, 그것은 현실 사회의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신앙계까지 포함하여 자신들에게 투영된 미래상을 보다 초월적으로 재구성한 메타포인 것이다.

31) 한병철 저,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32) Comaroff, John & Jean., *Christianity, colonialism, and consciousness in South Af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33) Nate Roberts, “Is conversion a ‘colonization of consciousness?,” *Anthropological Theory*, Vol.12, No.3, 2012), 272-294 쪽. 기독교 개종과 관련한 기타 대표적 논의들은 다음 저작들을 참고할 것. Peter van der Veer, *Conversion to Modernitie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New York: Routledge, 1996); Joel Robinson, *Becoming Sinners: Christianity and Moral Torment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IV. 나가는 말: 문화간 대화로서의 북한이주민 사역을 기대하며

이 글은 자유학교라는 북한이주민 대상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북한이주민들의 남한 사회문화 적응은 학습을 통한 일방적 주입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화 주체간 소통이자 교감의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여기서 소통의 내용과 방식이 되는 “문화”라는 범주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상징체계들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욕구와 열망, 기대감까지 포함됨을 주지하였다.

자유학교에 참여한 북한이주민들은 가장 잘 다듬어진 남한 사회의 통념과 행위 양식을 소개받으며, 자활 자립의 모범적 경제 주체로 거듭날 것을 동기부여 받는다. 그러한 모든 것이 절대자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신앙적 담론들은 단순히 남한 사회 적응이라는 현실적 이해요구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통일된 한반도,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코스모폴리탄 선구자상을 비전으로 품게 하는 총체적 전환을 북한이주민들에게 투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남한 사회의 기대치와 북한이주민들의 현실적 욕구와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그 간극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간극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소통의 과정에서 문화상대주의적인 태도와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묘사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이주민들에게 투영되는 이상적 크리스찬 시민상은 남한 사회와 교회의 기대치로써 북한이주민을 계속해서 타자화시키는 프로젝트임을 주지하고자 했다.

위안은 물론 새로운 권능 부여로 보다 긍정적인 자아로 거듭나며, 결정적 전환을 경험하는 기독교로의 개종, 또는 절대자로의 귀의는 분명 중요한 북한이주민 사역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남북한 주민간의 소통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향하고자 한다면,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와 찰스 타일러(Charles Taylor)가 제안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³⁴⁾ 약자들의 열망을 알기 위한 올바른 인식과, 그들의 이해요구 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향의 범위/능력(capacity to aspire)을 얼마나 넓힐지 가늠하고, 실천하는 상호 협력이 보장된다. 한반도의 통일과 민족복음화라는 원대한 공동 열망의 선행, “먼저 온 미래”로서의 북한이주민들은 적응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동역자로서 남북한 문화간 대화와 소통의 주체로 인정/인식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북한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인 실천대안들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겠으나, 그러한 과제는 차후 논문들에서 보완토록 하겠다.

34) Appadurai (2004), 62-70쪽;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ited and introduced by Amy Gutman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5-73쪽.

참고문헌

- 강진웅,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서울: 韓國社會學, 2011)
- 김병로, 『북한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영욱, 「남북한 문화 비교연구와 북한 선교: 남북한의 문화비교와 북한주민의 세계관과 선교」 『기독교언어문화논집』 제8권(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2004)
- 박영환, 「주체사상과 북한선교」 『神學과 宣敎(Telology and mission)』 제31권(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2005)
- 박영환, 「통일과정에서 북한선교의 기능적 역할로 본 북한교회 재건」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 제15권(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2007)
-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 유시은 · 전우택 · 조영아 · 홍창형 · 엄진섭,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 추적 연구-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9권 1호(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05)
-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서울: 집문당, 2009.
- 이덕주, 『주기철 목사 연구』, 서울: 학문과 사상사, 2003.
- 이수원, 「북한 주체사상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기독교 종교 활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1호(平和問題研究所, 2011)
- 이순형 · 조수철 · 김창대 · 진미정,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이현웅,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의 삶과 설교」 『신학사상』 제137권(한국신학연구소, 2007)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1999.
- 전우택 외, 「성인: 3년이 만들어 낸 무늬들」 정병호, 전우택 편 『웰컴투코리아: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전우택 · 유시은 · 엄진섭, 「북한이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1호(북한연구학회, 2009)
- 전우택 · 윤덕룡 · 엄진섭, 「남한 내 탈북자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3권 1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4)
- 전우택,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신앙과 학문』 제5권 4호(기독교학문연구소, 2000)
- 정병호, 「탈북 이주민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권 1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4)
- 조용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통일교육의 과제」 『국민윤리연구』 제57호(국민윤리교육연구회, 2004)
- 주선애, 「교회의 탈북자 사역 개발」 『교회교육』 제369호(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원, 2008)

-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 통일부 정착지원과 통계자료실, 북한이탈주민 현황,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PG0000000365> (검색일: 2012년 3월 27일)
- 〈제3국행 탈북자 최소 2600명 추산. 불법체류·영주권자 통계 안잡혀〉, 《한겨레 뉴스》, 2011년 8월 14일.
- 〈재입북탈북자 3명 북한서 좌담회…南 비방〉, 《데일리 NK》, 2013년 5월 18일.
- 〈탈북자 2백여 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시사저널》1085호, 2010년 08월 04일.
- 〈탈북 여성 3명도 5월 재입북…北의 포섭공작에 넘어간듯〉, 《동아일보》, 2012년 7월 24일.
- Appadurai Arjun, 「The Capacity to Aspire: Culture and the Terms of Recognition」, in Rao, Vijayendra and Michael Walton (ed). *Culture and Public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Asad, Talal, *Formations of the secular: Christianity, Islam, Modern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Comaroff, Jean & Comaroff, John L., *Christianity, colonialism, and consciousness in South Af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Grinker, Roy Richard, *Korea and Its Future: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 Horstmann, Alexander & Jung Jin-Heon(ed), *Building Noa' s Ark: Refugee, Migrants and Religious Communities*, NY: Palgrave Macmillan, forthcoming.
- Kim, Y. Y., *Making National Subjects: Education and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Immigrants in South Kore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 'i. 2009).
- Koo, Hagen(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Lankov, Andrei, 「Bitter Taste of Paradis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ast Asia Studies*, 2006.
- Luhrmann, T. M., *When God Talks Back: Understanding the American Evangelical Relationship with God*, New York: Vintage Books, 2012.
- Meyer, Birgit, *Translating the Devil: religion and modernity among the Ewe in Ghana*, NJ: Africa World Press. 1999.
- Ong, Aihwa,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 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Vol.37, No.5, 1996.
- Pratt, Mary Lousi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 Robbinson, Joel, *Becoming Sinners: Christianity and Moral Torment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Roberts, Nathaniel, "Is conversion a 'colonization of consciousness?," *Anthropological*

- Theory*, Vol.12, No.3, 2012.
- Shin, Gi-Wook,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Spindler, Gerooge D., "The Collusion of Illusions and How to Get People to Tell You What They Don't Know," in Zou, Yahli & Henry, Enrique (Eds). *Ethnography and Schools: Qualita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Educ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 Taylor, Charles,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ited and introduced by Amy Gutman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Van der Veer, Peter, *Conversion to Modernitie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New York: Routledge, 1996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원고접수일: 2013년 6월 3일 심사일: 6월 19일 게재확정일: 7월 17일

연구자 소개: 정진헌(鄭鎭憲)

- ① 전공 : 사회문화인류학 / 소속 :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Ethnic Diversity
 - ② 관심영역: 종교와 민족주의, 도시와 종교, 종교문화
 - ③ 주요논저: 〈Underground Railroads of Christian Conversion: North Korean Migrants and Evangelical Missionary Networks in Northeast Asia〉, 한국사회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공저), 남북한문화이해지 (공저)
 - ④ E-mail : poem04@gmail.com
-

Abstract

Ethnographic Study on a Mega-church Training Program for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Jung, Jinheon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Ethnic Diversi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migrants who arrived in South Korea reaches about twenty five thousands. This ethnography examines a mega-church's training program that is the most active and systematic among civil organizations working for the migrants' adjustment processes in the South. With consideration of the North Korean mission field as a North-South Korean cultural contact zone, this article elaborates main concerns that are experienced in the mutual culturalization processes between South Korean Christians and North Korean migrant trainees. It highlights that while Christian scholars suggest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s about North Korean society and North Korean migrants' particular life trajectories in helping North Korean migrants, such cultural relativist approaches are feeble in reality.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are perplexed in encountering cultural differences reflects a myth of cultural homogeneity fostered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an enduring Cold War consciousness emphasizing South Korean cultural superiority over the North. Under the division system, North Korean migrants' past life and identities in the North tend to be degraded as negative Other, and thus their conversion from Juche Ideology to Protestantism is teleologically promoted.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an ideal North Korean migrant who acquires capitalist norms and Protestant ethics to be a future missionary for national evangelization is projected by South Korean Protestant expectations. Such cultural project tends to drive North Korean migrants to feel both burdened and empowered in terms of future oriented predestination. And yet I argue that North Korean migrants should be recognized and subjectified as equal counterparts rather than objectified to learn and follow South Korean ways in the North-South Korean cultural dialogues.

Key words : North Korean migrants mission, cultural contact zone, culturalization and religious conversion, ideal North Korean migrant, cultural relativism